

국어 공통

1. 정답 2번

3문단 마지막 문장에서 독서 습관을 형성 하려면 '때문에 동기'와 '위하여 동기'를 바탕으로 독서 행위를 지속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으므로 동기의 두 측면을 합쳐 하나의 유형으로 제시했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2. 정답 5번

'나'와 '다'는 독서의 결과로 얻게 될 기대에 해당하므로 '때문에 동기'에 해당한다.

3. 정답 1번

선순환을 통해 독서경험이 반복되고 심화되면서 독서 습관이 자연스럽게 형성된다곳 하였으므로 독서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자연스럽게 사라진다고 한 1번이 적절하지 않다.

4. 정답 2번

1문단에서 초기 연구를 대표하는 재니스는 기존 연구에서 다루어지지 않았던 공포소구의 설득효과에 주목한 연구와 실험을 했고, 2문단에서 레벤달은 재니스의 연구를 비판하며 연구를 했고, 3문단에서 위티는 선행 연구들을 종합하여 공포 소구 이론을 통합한 결론을 내리고 있으므로 2번이 적절하다.

5. 정답 4번

4문단에서 위티는 위협의 수준이 낮으면 수용자는 그 위협이 자신에게 아무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느껴 효능 감의 수준에 관계없이 공포 소구에 대한 반응이 없게 된다고 하였으므로 4번이 적절하지 않다.

6. 정답 4번

집단 2는 공포소구에 대한 반응이 없었으므로 위협의 수준이 낮고, 집단 4는 공포 통제 반응이 작동 하였으므로 위협의 수준이 높은 경우이므로 4번이 적절하지 않다.

7. 정답 5번

5번의 기여하다는 도움이 되도록 이바지하다는 뜻이므로 □의 남에게 어떤 일이나 감정을 겪게 하거나 느끼 게 하다는 의미와는 다르다.

8. 정답 2번

고체촉매는 액체나 기체인 생성물을 촉매로부터 분리하는 별도의 공정이 필요 없다고 하였으므로 2번이 적절 하지 않다.

9. 정답 1번

금속을 활성 성분으로 사용 하는 고체 촉매의 활성을 높이려면 반응에 관여하는 표면의 활성 성분 원자가 많 을수록 높아 지므로 1번이 적절하지 않다.

10. 정답 4번

실리카는 표면적이 넓고 열적 안정성이 높으므로 소결로 인한 촉매 활성 저하가 억제되므로 4번이 적절하지 않다.

11. 정답 3번

흡착이 너무 강하면 흡착된 반응물이 지나치게 안정화되어 표면에서의 반응이 느려지므로 촉매 활성이 낮다. 따라서 d가 안정화되는 정도가 더 크다고 한 3번이 적절하다.

12. 정답 1번

기능이란 어떤 입력이 주어졌을 때 특정한 출력을 내놓는 함수적 역할이고, 함수적 역할의 일치는 입력과 출력의 쌍이 일치하는 것이다. 설은 예를 통해 함수적 역할은 같지만 출력이 같지 않다는 비판을 제시하고 있다. (나)에서는 지각은 물질적 반응이나 의식의 판단이 아니라 내 몸의 체험이라는 내용으로 객관주의 철학을 비판하고 있다.

13. 정답 3번

(가)의 4문단에서 로렌즈는 심적 상태가 주체의 몸 외부로 확장되는 것이 아니라 심정 상태를 생겨나게 하는 인지 과정이 확장되는 것이라고 했으므로 3번이 적절하지 않다.

14. 정답 1번

(나)의 필자의 관점은 3문단에서 주체와 대상은 지각이 일어난 이후 비로소 확정된다고 했다. 따라서 지각 이전에 확정된 주체를 전제한 것이므로 타당하지 않다고 한 1번이 적절하다.

15. 정답 2번

3문단에서 지각은 주체와 대상이 각자로서 존재하기 이전에 나타나는 얽힘의 체험이라고 했다. 지각이라는 얽힘의 작용이 있어야 주체와 대상이 분리될 수 있다고 했으므로 2번이 적절하다.

16. 정답 3번

'파생적 상태'는 주체의 해석에 의존해서만 또는 사회적 합의에 의존해서만 의미를 나타내는 상태로 정의되므로 파생적 상태가 아니라고 한 3번이 적절하지 않다.

17. 정답 4번

조사하거나 살펴보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4번이 적절하다.

18 ①

막동의 대화에서 '한 식경 후', '날이 저물 때쯤', '오늘', '내일', '다음 날', '그다음 날', 그리고 생의 대화에서 '모월 모일', '그날 이후' 과 같은 시간 표지를 활용하여 사건의 추이를 드러내고 있다.

19 ②

노파의 집에서 손님을 전별하는 일을 벌인 데 대해 번거롭게 하였다고 한 것은 생이 한 말에서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노파가 번거로움을 호소하였다.'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

20 ④

㉠은 생이 영영에 대한 정보를 얻게 하기 위한 막동의 계책이다. ㉡이 이루어지면 생이 노파에게 속내를 드러낼 기회를 얻게 된다. ㉢은 생이 영영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을 노파가 알려주는 것이다. ㉣이 이루어지면 생이 영영을 만날 기회를 얻게 된다.

21 ⑤

회산군 부인의 허락을 구하려는 노파에게 생이 동조하는 것은 생이 영영을 만나기 위한 것일 뿐, 사회적 관습

안에서 현실적인 애정 성취 방법을 찾는 인물의 내적 갈등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22 ⑤

[E]는 취사사에서 겨울을 구하여 집으로 돌아온 뒤의 명함을 '마치 술에서 막 깨어난 사람이 잔뜩 취했을 때를 되짚어 생각하는 듯하였다'고 하였으므로 비유적 표현을 통해 겨울을 얻어 오는 일에 마음을 빼앗겨 의리를 잠시 잊었던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는 글쓴이의 상태가 부각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3 ④

세월이 빠르게 흘러가기 때문에 백세이라도 길다고 느끼지 않을 것이라는 뜻이지 흘러간 시간이 길다는 의미가 아니다. 자연에서 한가로움을 즐기는 삶에 대한 만족감의 표현이지 세월이 빠르게 지나가는 것에 대한 화자의 안타까움을 강조한 것은 아니다.

24 ①

<제1수>는 속세에서 충효를 실천하기 위해 십 년의 세월을 보냈다는 것이며, <제3수>는 비록 못 이뤄도 임천(자연)이 좋다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임천이 좋으니라'와 '마음에 하고자하여'에는 다른 태도가 나타나 있음을 알 수 있다.

25 ③

글쓴이는 겨울을 얻도록 상사공이 자신을 도와준 것을 자기가 '의리'를 해칠 것을 걱정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지 않다. 글쓴이는 상사공이 겨울을 얻도록 도와준 것을 '나의 곤궁함을 불쌍히 여겨서일 뿐이리라'고 서술하고 있다.

26 ④

(나)의 '시골벽적하게 뒤섞여 밟아 대'는 모습은 '겨름'을 얻기 위해 모여 든 자들이 '겨름'을 차차하기 위해서 벌어진 일이다. 경제적 문제로 곤란을 겪는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가)는 자연에 은거하는 화자가 날이 저물어 할 일이 없다는 것이지 출사하지 못한 것에 대해 고민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없다.

27 ⑤

작품 밖의 서술자가 중심인물인 정일의 입장에서 보고 느낀 것을 서술하고 있다. 따라서 서술자가 중심인물의 시선에 의존하여 사건의 양상을 제한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28 ③

㉔는 상속확인을 받기 위해 용기를 내어 장인에게 들어가는 용팔이를 불안하게 바라보는 정일의 태도가 드러나 있다. 용팔이의 행위에 대해 실망스러운 마음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 아니다.

29 ④

[A]에서 상속세를 내지 않기 위해 정일 자신과 공모하려는 용팔에 대해 불쾌함과 미움을 느끼고 있다. 그 감정으로 인해 그의 뺨을 갈기고 싶은 충동을 느끼고 있다. [B]에서 '물그릇'에서 '어항' '드리우는 물줄기'로 심화되는 만수 노인의 갈망을 '서늘한 감각'이라고 표현하였다.

30 ②

용팔의 웃음에서 정일은 미워서 그의 뺨을 갈기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고 하였다. 그런데 금시에 미끄러지는 듯한 웃음이 자기 얼굴에 흐르는 것을 깨달은 것은 상대에 대한 불쾌감을 웃음으로 무마하려는 것으로 본 것은 적절하지 않다. 정일 자신을 구속하는 속물적 욕망의 웃음으로 볼 수 있다.

31 ④

(가)에서 '싸늘한 바위'와 '뜨거운 마음', '어둠'과 '해돋는 아침'에서 대비되는 감각적 시어를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나 대상의 양면성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나)에서는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존재를 대상으로 삼고 있으나 반복되는 행위를 제시하여 대상의 효용성을 드러내고 있지 않다.

32 ②

'아픈 가락'은 의로운 사람들이 피 흘린 곳에 솟아오른 대나무로 만든 피리의 가락으로 화자가 임에게 전달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피리 가락이다. 따라서 의로운 사람들이 보여 준 희생이 담겨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가락에 '아프'고 '사모침'이 담겨 있다는 것에서 설움이 담겨 있다고 짐작할 수 있다.

33 ⑤

(가)의 화자는 '붉은 마음'이 '솟'이 되고 '재'가 될 때까지 시간이 흘러 모습이 변해도 임에 대한 마음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지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나)의 화자는 '담벽'을 '라일락, 별, 우리 길 개의 똥'들과 같이 언어로 표현하려는 주변 사물 중의 하나로 보고 있다. 따라서 화자가 '담벽' 안에서 '봄'과 같은 세계를 대상들과 공유하려 하고 있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진술이다.

34 ③

(나) 시를 언어의 한계와 가능성에 대한 탐구를 보여 주는 것으로 본다면 '봄'을 '자유'가 아닌 '꽃피는 지옥'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기존의 언어 사용 방식을 벗어나 새로운 표현을 시도하여 언어와 대상의 자유를 얻을 가능성을 모색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